

THE BC

BEAUTIFUL CONSUMER, BETTER CULTURE

MARCH 2013, VOL 155

Photographed by Danita Dellmont

SPECIAL
03
HOTEL

이토록 감각적인 하룻밤

세계의 부티크 호텔을 가다

최근 여행의 대세는 단연 부티크 호텔. 트렌디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주목받는 세계의 부티크 호텔 6곳을 소개한다. 단, 이곳에 머물다가는 밖으로 나가기 싫어질지도 모르니 주의할 것!
에디터 홍혜원 사진 윤용식 자료 제공 호텔스닷컴(kr.hotels.com), 에바중(www.evasion.co.kr)



프롬프트리유 기법을 사용해 실제처럼 느껴지는 클래식한 벽과 모던한 가구의 조화가 이채롭다.



오래된 도시에서 발견한 새로운 아름다움 센투리온 팰리스

'전통과 현대의 만남'은 흔한 테마이지만, 베네치아에서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도시 전체가 시간이 멈춰 선 듯한 베네치아에서 모던함을 만나는 일이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운하 입구에서 바로 보이는 '센투리온 팰리스'는 이곳에서는 드물게 만나볼 수 있는 현대적 스타일의 부티크 호텔이다. 베네치아에서 가장 여행하기 좋은 위치로, 관광의 중심인 산마르코 광장과 가깝지만 북적거림은 덜한 차분한 분위기다. 산타루치아역에서 수상 택시를 타고 20여 분이면 도착하는 이곳은 디자인 호텔이나 럭셔리 호텔만 가입할 수 있는 SLH(Small Luxury Hotel)의 회원 호텔로, 궁전을 닮은 건물 외형이 우아한 자태를 뽐낸다. 1892년에 지어져 원래 수녀원으로 이용되던 건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고딕 양식의 건물들과 큰 차이가 없지만, 내부는 베네치아 특유의 터치가 가미된 모던한 감각으로 장식돼 있어 반전을 선사한다. 베네치아에서 가장 트렌디한 호텔인 이곳은 총 50개의 룸이 각각 다른 컬러와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는데, 강렬한 핑크와 지중해의 태양을 담은 옐로 등 특유의 로맨틱한 컬러 감각이 눈길을 끈다. 여타 도시와는 다른 디자인 감각을 엿볼 수 있다.

'센투리온 팰리스'의 모든 객실에서 운하가 바로 내려다보이지만, 풍경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꼭 201, 209, 210, 212, 401, 402, 502 7개의 방 중 하나를 선택하길 권한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고색창연한 도시 풍경과 감각적인 내부의 조화는 분명 베네치아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을 선사할 것이다.

주소 Dorsoduro 173 30123 Venezia (VE)
문의 +39-(0)41-34281 www.centurionpalacevenezia.com



2

- 1 강렬한 마젠타 빛으로 장식한 프레지덴셜 스위트 룸
- 2 모던한 디자인 가구가 돋보이는 슈퍼리어 더블 룸
- 3 운하의 풍경이 운치를 더하는 바의 내부



3



- 1 로비 역할을 대신하는 아트리움에서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다.
- 2 중국 전통 도자기 조각을 모티브로 옷을 표현한 작품
- 3 컨템퍼러리 스타일로 꾸며진 객실 내부





전면 유리를 사용한 로비의 풍경



미술관보다 더 감각적인 어퍼짓 하우스

중국에서 만나는 부티크 호텔은 다소 특별하다. 서양에서 흔히 보던 것과는 다른, 동양에서만 표현 가능한 디자인 정서를 만나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 패션문화지구 썬리툰에 위치한 '어퍼짓 하우스'는 지금 가장 주목받는 중국의 부티크 호텔이다. 매일 밤낮으로 세계의 트렌드세터를 모으고 있는 핫스팟이기도 하다. 외관부터 내부까지, 호텔인지 갤러리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세련된 이곳은 일본 도쿄의 루이비통 본사를 설계한 것으로 유명한 일본의 건축가 쿠마 켄고의 디자인이다.

건물 외벽 전체를 초록색 유리판으로 마감해 마치 거대한 큐브처럼 보인다. 복잡하고 바쁜 베이징 시내와 대비되는 여유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중국 전통 스타일에 미니멀리즘을 더한 도심 속 인공 숲을 만들었던 것. 디자인뿐 아니라 서비스에도 차별화를 시도했다. 로비가 아니더라도 호텔 어디든 투숙객이 원하는 곳에 직원들이 직접 노트북을 들고 와 체크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어퍼짓 하우스'의 중심은 로비가 아니라 아트리움이다. 객실과 부대시설들이 현대미술 갤러리가 위치한 아트리움으로 배치돼 있다. 이로 인해 투숙객들은 호텔 내 어디서나 마치 미술관에서 묵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아트리움에서는 언제나 수준 높은 전시만을 엄선해 열리고, 투숙객뿐 아니라 일반 관람객도 방문할 수 있으니 베이징 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눈여겨보자. 객실뿐 아니라 호텔 내 레스토랑과 바, 카페 등은 항상 멋진 젊은이들로 넘친다. 하루가 다르게 스타일리시한 여행지로 변모 중인 베이징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공간.

주소 The Village, Building 1 No.11 Sanlitun Road Chayang District Beijing, China 100027

문의 +86-(0)10-6417-6688 www.theoppositehouse.com